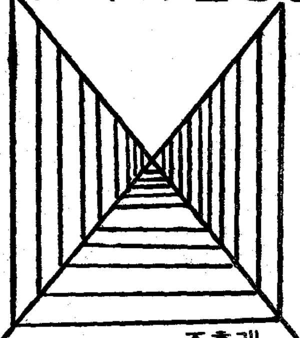
사료의 수급동향

조홍래



1969년도 가을부터 1970년 1월까지는 사료 수급면에서 별로 이렇다할 정세 변동이 없이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양계용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미국의 옥수수 풍작과 적기 도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2월말까지 공급하고자 46,050톤을 재정차관으로 1969년 12월 17일 및 1970년 1월 4일에 수입하여 다가오는 사료의 성수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69년도 하반기 이후의 풍성한 양계경기를 기화로 하여 양계 사육수의 급격한 증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료 수요를 가일층 증대시켜 수급을 불안하게 할 요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서는 양계가 여러분이 안정된 양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1970년도 도입 계획 중인 재정차관에 의한 옥수수의 일부를 2월 중에 국내에 도착시켜 수급상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미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차관 옥수수의 적기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 수입에 의한 도입 방안을 병행하여 모색하고 있다 하므로 옥수수 수급상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단백질사료 중 어분의 수입 가격은 적정가격(톤당 C & F 180$선)을 상회하여 톤당 C & F 240$선으로 앙등되어 어분 수급의 전망을 흐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분을 기타 식물성 박류(예 대두박 등)로 일부를 대체하려고 하나 식물성 박류에 부족한 메치오닌 등은 합성 메치오닌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가축영양제나 성장촉진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료에 첨가할 경우, 특관세 과세 및 동물약품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이윤 등을 가산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부족되는 동물성 단백질사료에 대하여는 어분만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수입품목을 다양화하여 혈분·육골분·우모분 등도 어분과의 경제적 유리성을 비교 검토한 연후에 보다 유리할 경우 수입하는 것이 외화 절약을 위해서나 사료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백질사료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어분 1,950톤을 2월과 3월에 대두박 5,500톤 중 1,500톤을 1월에, 4,000톤을 3월초에, 그리고 육골분 820톤을 1월에 도입하고 우모분과 혈분 등 동물성 단백질사료 600톤을 3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류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밀기울은 제분용 소맥이 월간 100,000톤 이상 가공될 것이 예상되므로 23,000톤 이상의 밀기울이 원활히 유통될 것이고 404개소의 지정된 배합사료 공장의 직매소를 통하여 단미 형태로 월간 15~20만가마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월말까지 일본산 쌀 28만톤이 정상 수입된다면 여기서 17,000톤 이상의 탈지강이 생산되어 유통될 것이므로 강류사료 수급이 더욱 더 원활하여 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료사료로 2월에는 품질이 보장된 배합사료가 전국적으로 약 38,000~40,000톤이 생산되어 산란계용 보통사료가 경인지구에서는 15kg들이 포대당 430원, 부산지구에서는 410원선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폐협회에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각종 가축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한편 국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사료의 낭비를 방지하고 1970. 1. 15일 폐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의 공정규격 조정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당국과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배합사료 공정규격 개정에 반영하도록 농림부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